

#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: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1호(주식)
2. 효력발생(예정)일: 2016년 9월 23일
3. 정정사유
  - ① 운용전문인력 변경
  - 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이익 배분 조항)
  - ③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사항 반영
4. 정정사항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변경시행일: 2016-09-23 변경 사항: 운용역 변경
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역: 오남훈 부책임운용역: 김예리	책임운용역: 홍성철 부책임운용역: 김예리
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채권: 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)  <중략>  어음: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	채권: 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)  <중략>  어음: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

	<p>&lt;중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&lt;중략&gt;</p> <p>※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신탁계약서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</p>
<p>제2부</p>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이익배분</p>	<p>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</p>	<p>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1)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2)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p> <p>[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]</p> <p>2016 년 9 월 23 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(2 천만원)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